

여호수아(23) 스스로 조심하여

■ 본문

수 23:1-13

■ 시작 찬송가

183장(통 172장)

■ 헌금 찬송가

301장(통 460장)

▶ 성경 속 고별 설교

- 야곱(창 48-49)
- 모세(신명기)
- 여호수아(수 23-24)
- 사무엘(삼상 12)
- 바울(딤후 4)

믿음의 고백 여호수아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모두 감당하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별 설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성경에 고별 설교를 남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과 순종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닮아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으며, 자신의 실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 고별 설교의 클라이맥스는 ‘신 33:29’입니다.

신 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세가 이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역올한 일을 당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 24:14-15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클라이맥스는 ‘수 24:14-15’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전합니다. 스스로를 좋게 여기며 다른 것을 전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며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다름과 따름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아닌 각각 다른 고별 설교입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90세에 실로에서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이고, 24장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 전한 말씀입니다. 장소, 대상, 때에 따라 다른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경계의 말씀을 듣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과 경고의 말씀, 깊이 있고 무거운 말씀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 23:16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늙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힘과 능력이 있는 늙음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꿈이 있고 용기와 실력이 있었습니다. 늙었다고 다 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신앙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 23: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3) 여호수아의 고백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광야에서 많은 전투를 치르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절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감히 공로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 23: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수 23:4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였노라’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왜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 23: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소망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을 것인가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눈을 감을 준비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정복한 땅과 많은 인구, 좋은 무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 은혜 찬양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 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오늘의 한마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